

“3만명에 DM”...환승연애3 우려와 기대 사이

‘핑크라이’ 김인하 PD 새 연출로
“압박감...수능시험장 갇힌 느낌”
길거리 캐스팅도·진정성에 초점
인플루언서 이유정 출연 갑론을박

티빙 ‘환승연애’(2021-)는 시즌3부터 제작진이 바뀌어 시청자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사귀다가 헤어진 커플이 출연해 드라마보다 높은 몰입도를 자랑했지만, 이후 시즌 1-2 이진주 PD는 JTBC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시즌3 티저가 공개되자 ‘기존 환승연애 감성과 바뀐 것 같다’며 걱정 어린 반응이 나왔다. 김인하 PD 역시 디즈니플러스 ‘핑크라이’(2022)로 연애 프로그램을 경험했지만, 촬영 후 5kg이나 빠질 만큼 압박감이 상당했다. “잠이 안 온다. 수능 시험장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며 “많이 도망가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시즌1~2와) 크게 다르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환승연애는 훌륭한 포맷이고, 나도 워낙 애정자다. 제작진이 달라졌다고 바뀌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연애 리얼리티는 출연자에 따라 매회 차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시즌3의 가장 큰 다른점은 출연자다. 포맷이 너무 똑같으면 모든 상황이 일할 수 있어서 태백, 실 등으로 기존 감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변주를 줬다. 포맷 자체가 해어진 연인이 나와서 감성이 달라질 수 없다. 관계성에서 나오는 게 주다. 어떤 PD가 와도 확실한 서사가 있어서 달라지지 않을 거다.”

환승연애는 이별한 커플이 한 집에 모여 3주간 지나는 연애를 되짚고, 새로운 인연을 마주하며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시즌3는 총 8명이 출연하며,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29일 자정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시즌2 성혜은·정규민 커플을 뛰어넘는 이들이 등장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들의 서사가 강력하지 않았느냐. 나도 팬이었다. 제2 해은·규민은 없지만 확실히 다르다”면서 “3만명에 넘는 분들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냈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받지 않았을까 싶다. 길거리 캐스팅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유명 관광지, 학교 등에 가서 캐스팅 했다. 놀랍게도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분들이 ‘DM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출연자 진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연애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한 번 봐서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빈번한 미팅을 통해 심층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다. 커플 이야기가 다룰 수 있으니, 각각 만나서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출연하겠다고 하고 안한 분들도 많다”며 “확실히 아는 프로그램이라서 선뜻 출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상대가 안 하겠다고 해 출연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티저에서 출연자 4명이 등장했다. 벌써부터 인플루언서 출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히 미스코리아 출신 모델 이유정은 리더스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7만명을 거느리고 있다. “환승연애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자신의 연애사를 밝히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나온다는 건 그들만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며 “본방송을 보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셀럽인 걸 알고 설외한 건 아니다. 스포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냥 모델이다. 직업 공개 때도 모델이라고 당당히 밝힌다. 모델과 인플루언서 경계가 약간 모호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티저 속 한 여성이 “날 여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진짜 못됐어” “네가 미안해 했잖아? 환승연애 이만 거 안 나왔어”라고 한 장면도 시선을 끌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ميم’(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처럼 퍼지고 있다. “솔직하게 일한 징



표”라며 “그들의 서사가 좀 더 솔직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나의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사각 지대가 없어서 카메라에 잘 담겼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실 커플 탄생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촬영 끝나고 편집실에서만 살아서 출연자를 못 만났다”며 말을 아꼈다.

우즈의 ‘해가 될까’는 환승연애를 상징하는 음악이다. 이번에도 배경음악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당연히 해가 될까도 나온다. 이번에 ‘SKY 캐슬’ 최정인 음악감독님이 합류했다. 기존의 김태성 감독님과 같이 호흡하던 분이요. 약간 새로운 결의 음악도 나오지만, 이전 음악도 사용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작가도 바뀌었다”며 “색 보정은 핑크라이 때 같이 한 분들이라서 (환승연애 시즌1~2와) 다를 것 같긴 하다. ‘도깨비’ ‘그해 우리는’ 등을 한 팀”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현아·던, MC 전현무·모델 한혜진 등 결별한 연예인이 환승연애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나도 궁금하다. 막상 연락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가장 최근에 전현무씨가 환승연애에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다. 전현무씨 상대는 누구냐고? 심층 인터뷰하면 한 번만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웃었다.

최근 공개한 넷플릭스 ‘솔로지옥3’와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솔로지옥3를 못 봤다. 지금 편집에 정신이 없다”면서도 “경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돼야 보는 재미가 많아지지 않느냐.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좋아하는 층과 관련 포인트가 다르다. 환승연애3도 많이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극적인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도 헤어진 연인간 서사는 강력하다. 그걸 넘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사귄 것 자체가 리얼”이라며 “타 예능에 비해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미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줄일 수 없더라. 서사를 다 표현하려면,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다. 환승연애의 강력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여전히 ‘환승연애가 재미있다’는 평을 받았으면 한다. ‘제작진이 달라져서 바뀌었다’는 색안경없이 봐줬으면 좋겠다. 좋은 포맷이라서 후배 PD도 하고, 시즌이 이어져서 영원히 바란다. 이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다양한 커플을 준비하는데, 각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다. 기대하는 수치있냐고? 난 만들어서 티빙에 납품하는 입장이다. 수치는 티빙만 온전히 아는 거라서... 내가 어디에 갔는데 ‘환승연애 봤어?’라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다.”



아내 전해진, 112에 이선균 신고...안타까운 애정사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사망하면서 그와 아내인 배우 전해진(47)과 안타까운 애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전해진은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 열애의 시작은 이선균이었다. 미스코리아 경남 선 출신으로 상명대에서 영화를 공부한 전해진은 2000년대 초반 대학로 위주로 활동했다. KBS 2TV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등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쌓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연극과 출신인 이선균은 그런 전해진을 마음에 두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약 6년 간의 연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당시 이선균은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등을 통해 인기 스타 반열에 올라 결혼과 전해진이 크게 화제가 됐다.

이후 전해진은 한동안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다 2013년 두 부부가 동반 출연한 연극 ‘러브, 러브, 러브’로 재조명됐다. 2015년 영화 ‘사도’의 ‘영반’ 역으로 같은 해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배우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JTBC 드라마 ‘미스티’(2018), tvN ‘검색어울 입력하세요 WWWW’(2019), tvN ‘비밀의 숲 2’(2020), 영화 ‘행랑’(2019), 영화 ‘백두산’(2019) 등을 통해 남편 못지 않은 무게감을 지닌 배우가 됐다. 이에 따라 두 아들을 둔 이들 부부는 대표적인 스타 배우 커플로 통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이들 가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선균은 유혹성 여성 실장 A(29)씨와 엮이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다. 최근 전해진이 손해를 보면서 150억 원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선균이 협박당한 사건과 연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해진 측은 남편의 마약 혐의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균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 아내와 두 아들에게 크게 미안해했다. 전해진은 그 가운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크게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 ‘겟 어 기타’ 스포티파이 3000만 스트리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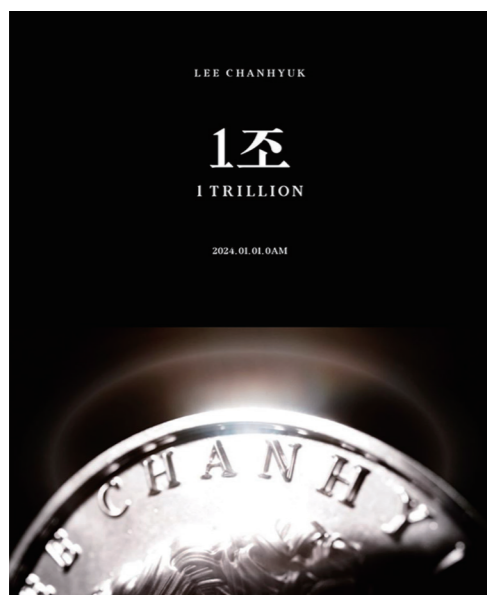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RIIZE)’가 국내를 넘어 해외 음악 플랫폼에서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라이즈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 곡 ‘겟 어 기타(Get A Guitar)’는 세계 최대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

앞서 라이즈는 9월 데뷔 당시 스포티파이 데일리 바이럴 송즈 한국 차트에서 ‘겟 어 기타’로 7일간 1위를 차지함은 물론, 스포티파이 월별 리스너 수 최대 289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라이즈는 ‘겟 어 기타’로 지금까지도 멜론 일간·주간·월간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다. 올해 데뷔 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편, 라이즈는 오는 31일 ‘2023 MBC 가요대제전’에 출연한다.



이찬혁, 새 프로젝트 시작 1월 1일 신곡 ‘1조’ 발표

홍성듀오 ‘악뮤’ 이찬혁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2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찬혁이 내년 1월1일 0시 신곡 ‘1조’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1조 (1 TRILLION)’ 모션 티저는 독특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찬혁(LEE CHANHYUK)’, ‘1조’, ‘1996’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이 회전하다가 의미심장한 사운드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곧 수천 개의 동전들이 빠르게 비치며 이찬혁의 얼굴이 완성됐다.

‘1조’라는 강렬한 제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예측불허한 상상력과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로 리스너들을 사로잡아왔던 이찬혁인 만큼 신곡에 내포된 의미에 궁금증을 높인다.

YG 측은 “이찬혁의 독보적인 예술성을 오롯이 담아낸 음악과 그 안에 녹아든 섬세한 스토리를 기대해달라”며 “2024년 뜻깊은 한 해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같은 곡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블랙핑크 제니, 솔로 자격 첫 빌보드 ‘핫100’ 진입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솔로 자격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처음 진입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팜계에 따르면, 제니가 캐나다 스타 싱어송라이터 위켄드·미국 배우 겸 가수 릴리 로즈 멜로디 팀과 함께 부른

‘디 아이돌’ OST ‘원 오브 더 걸스’, 100위 데뷔

HBO 시리즈 ‘디 아이돌’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가 30일 자 ‘핫100’에서 100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데뷔했다.

앞서 ‘원 오브 더 걸스’는 영국 오픈셜 싱글 톱100 최신 차트(22~28일)에서 62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5주간 머물렀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각종 차트에서 순위가 상승했는데, 이번에 ‘핫100’까지 진입했다.

제니는 블랙핑크 멤버로 ‘핫100’에 수차례 진입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공개한 스페셜 싱글 ‘유 앤드 미’가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100(Billboard Bubbling Under Hot 100)’에서 2위를 차지하며 ‘핫100’에 어렵게 진입하지 못했다. 이 차트는 ‘핫100’에 어렵게 진입하지 못한 25위까지를 매긴 순위 차트다. 제니는 2018년 11월 첫 솔로곡 ‘솔로’를 내놓았는데 당시엔 빌보드 세부차트에선 큰 두각을 나

타내지 못했다.

블랙핑크 멤버들 중 로제와 리사도 ‘핫100’에 솔로로서 진입했다.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70위), 리사의 ‘라리사’(84위)와 ‘머니’(90위)다. 블랙핑크 다른 멤버 지수의 ‘꽃(FLOWER)’은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100’ 4위에 올랐다. 블랙핑크는 ‘핫100’에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기록 중인 ‘아이스크림’(13위)을 비롯 다수의 곡을 올렸다.

제니는 ‘디 아이돌’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블랙핑크 활동은 자신을 발굴한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 나가지만 최근 개별 활동을 위한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ODD ATELIER-OA)’를 설립했다. 내년엔 유재석, 차태현 등과 함께 tvN 실화 추리극 ‘아파트404’에 출연하는 등 예능 활동도 나선다.

인피니트 김성규, 새해 첫날 신곡 ‘필링’ 발매

내년 1월1일 오후6시 발매

그들 ‘인피니트’ 멤버 겸 솔로가수 김성규가 2024년 새해 첫날 신곡을 발매한다.

27일 소속사 더블에이치티엔이에 따르면, 김성규가 가창에 참여한 리본 프로젝트 컬러베이션 신곡 ‘필링(Feeling)’이 내년 1월1일 오후6시 음원사이트에서 발매된다.

‘필링’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그린 곡으로, 1999년 발매된 김사랑의 데뷔 앨범 ‘나는 18살이다’의 수록곡을 리메

이크했다. 당시 감성적이고 세련된 밴드 사운드로 인기를 얻은 원곡과는 또다른 매력을 담아 색다른 스타일로 재해석한다. 김성규는 특유의 호소력 짙고 감미로운 보이소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성규는 지난 7월 인피니트 미니 7집 ‘비긴(13egin)’을 발매하고 약 5년 만에 완전체로 가요계에 컴백했다. 또한 인피니트 아시아 투어 및 김성규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으며, 각종 방송 및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꾸준히 소통 중이다.

